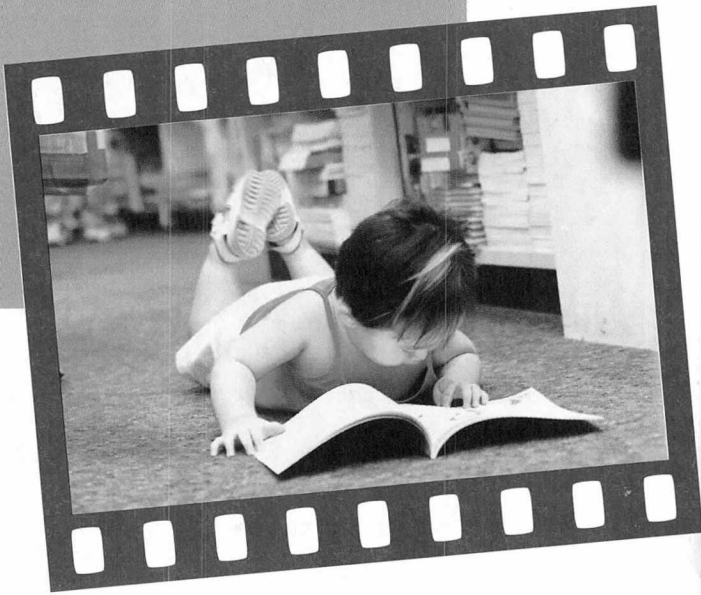


책장 넘어가는 소리, 삶의 심연에 가 닿는 풍경

독서에 관한 몇가지 단상

#1 “만약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도서관일 것이다”고 말한 사람은 프랑스의 문예비평가 가스통 바슐라르였다. 천국은 정말 지루한 곳인가.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생애 최초로 내게 재잘거리던 책 한권.

#2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행위는 책장 너머에 있는 존재와 소통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 존재가 우리에게 건네는 ‘암호’를 해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책을 통해 그 존재에게 한 걸음씩, 한 페이지씩 다가간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걸쳐 있는 현재라는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40페이지와 41페이지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시간은 우리를 비껴간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비껴간다.

#3 책 읽는 이의 얼굴은 다양 각색이다. 너무나 진지하고 편안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강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책 읽는 이의 얼굴을 살피는 일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흥미로울 때도 있다. 그는 과연 무슨 책을 읽고 있는



책 한권을 함께 들여다본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우리 함께 갈까?



하루가 차곡차곡 몸에 쌓이는 퇴근길. 문득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몇 번의 지하철을 그냥 보내고 짐짓 모르는 척 책을 읽듯이.



책의 몸에서 빠져나온 그 적막한 말들이
가슴에서 끊임없이 환한 것들을 불러일으킨다.

것일까. 가끔 책장이 한장씩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얼굴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몽상가이거나 현실도피자임이 분명하다.

#4 창문을 통과한 햇살이 책장을 비추기 시작한다. 검은 활자들 위로 유리 같은 빛 알갱이들이 어롱거리며 흔들린다. 책 읽던 사람은 고개를 들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 태양이 축복처럼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태양을 바라보다 기지개를 힘껏 켜고는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어루만진다. 피곤한 듯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히품을 하는 그의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하다. 그의 눈은 한없이 평화롭고 깊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워 책을 읽었고 방금 마지막 구절 읽기를 끝냈으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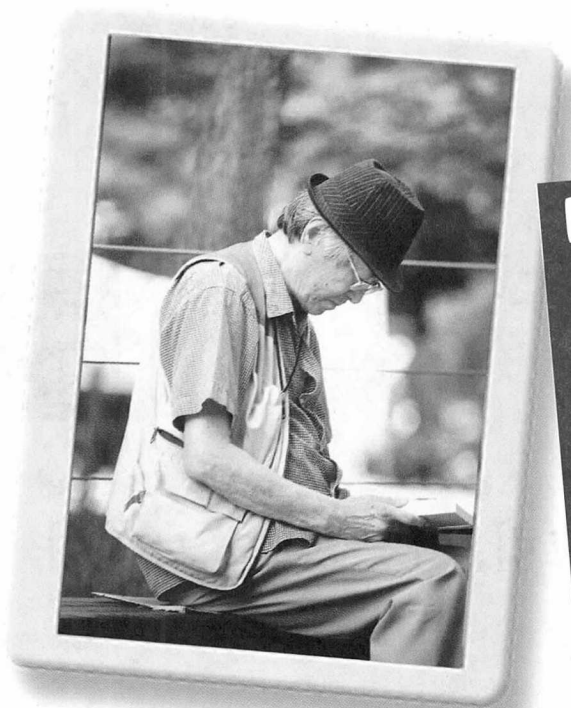
— 사진 · 김경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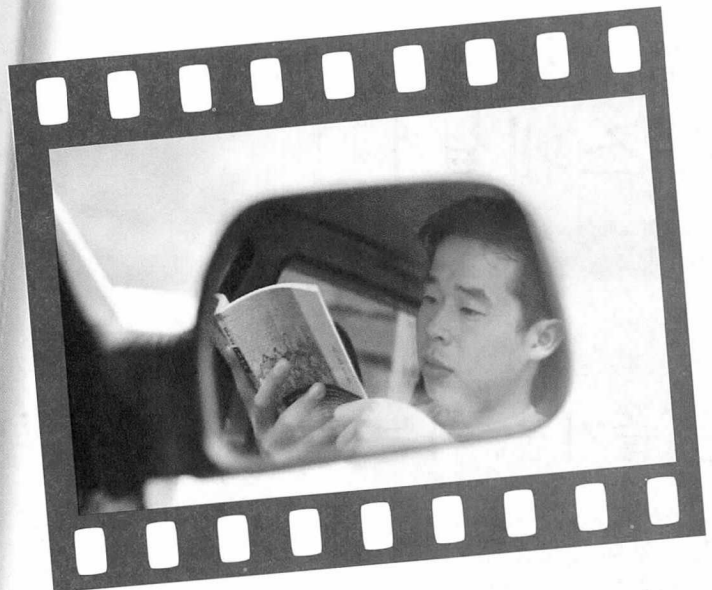
우리 모두 읽던 시절이 있었다. 세상이라는 미궁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무언가 찾아 헤매던 시절. 그 빛나던 시절의 책들.



가끔 도서관에서 길을 잃는다. 오래 묵은 책들에서 나는 녹록한 냄새들, 책을 펼치면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수세기 전의 어둠. 가끔 그 지독한 냄새와 어둠에 감염되고 마는 때가 있다.



기억하기 위하여 기억되기 위하여 살도 시간도 넘어 이제 세상의 여백이 되기 위하여.



잠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책을 읽는다. 백미러가 길을 비추듯 겨를 없이 지나온 삶이 나를 비춘다.